임자와 잣대와 줏대와 배짱

저자 최봉영
작성일자 2019년 12월 16일
출처 최봉영의 페이스북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까닭으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 되는 사람과 안되는 사람 따위가 생겨나게 된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 임자가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 임자가 올바른 잣대를 올바르게 쓰는 줏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는 임자가 줏대가 있게 일을 벌여나가는데 필요한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말에서 '임자'와 '잣대'와 '줏대'와 '배짱'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임자

한국말에서 '임자'의 옛말은 '님자'이다. '님자'는 '님'과 '자'로 이루어진 말이다.

'님자'에서 '님'은 '니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 '님'은 '니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머리 위에 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람은 누리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늘을 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까닭으로 한국사람은 누리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머리에 하늘을 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누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을 니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고, 하늘에 자리하고 있는 해, 달, 별을 니고서 함께 돌아간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한국사람에게 하늘과 누리는 온갖 것들이 서로 니고서 끊임없이 함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때와 곳을 말한다.

한국사람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머리에 니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다른 것을 니고 있을 수 있는 것을 '님'이라고 보았다. 어떤 것이 '님'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닐 수 있는 뜻과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람은 닐 수 있는 뜻과 힘을 가진 낱낱의 '나'인 것을 '님'으로 보는 동시에 '나'의 밖에 있는 '남'인 것을 또한 '님'으로 보아서 '남'을 '손님'이라고 부른다.

'님자'에서 '자'는 '님자'가 어떤 것을 재는 일에 쓰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님'이 어떤 것을 헤아려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을 잴 수 있는 '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말에서 ‘님자’는 '님' 가운데서 제가 갖고 있는 ‘자’를 가지고, 스스로 ‘저’인 것이나 ‘남’인 것을 재어서, 어떠한 것으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잣대

‘님자’가 갖고 있는 ‘자’는 저마다 따로 하는 것이다. ‘님자’는 이러한 ‘자’를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잣대’로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위(公共)의 것'이 되도록 한다. 예컨대 사람들이 ‘한 뼘’, ‘두 뼘’이라고 말하는 ‘뼘’은 저마다 따로 하는 ‘자’를 말한다. 사람마다 ‘한 뼘’, ‘두 뼘’의 길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뼘’, ‘두 뼘’을 넘어서 막대를 가지고 ‘한 자’, ‘두 자’를 잴 수 있는 ‘자’를 만들게 되면, '그위(公共)의 것'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잣대’로서 자리하게 된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려면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더불어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하는 ‘잣대’를 제대로 잘 만들어야 한다. ‘잣대’를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로 모두가 함께 하는 ‘잣대’가 맞고 옳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맞고 옳은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잣대에 대해서 함께 묻고 따지고 풀어야 한다.

둘째로 모두가 함께 하는 ‘잣대’가 맞고 옳은 경우에도, ‘잣대’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맞고 옳은 ‘잣대’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묻고 따지고 풀어야 한다.

3. 줏대

사람이 ‘님자’로서 ‘잣대’를 가지고 쓰는 바탕은 낱낱의 ‘님자’가 갖고 있는 ‘줏대’에 달려 있다. ‘줏대’는 낱낱의 ‘님자’가 갖고 있는 나름의 ‘잣대’를 말한다.

낱낱의 ‘님자’가 ‘줏대’를 가지고 줏대가 있게, 한결 같이 ‘잣대’를 써야, 저와 남이 일에서 갈피를 잡을 수 있다. 낱낱의 ‘님자’가 ‘줏대’를 갖지 않고, 아무렇게나 ‘잣대’를 쓰면, 저와 남이 일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줏대’가 약하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은 ‘잣대’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게 된다.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남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고, 남에게서 믿음을 얻을 수도 있다.

4. 배짱

낱낱의 ‘님자’가 ‘줏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줏대가 있게 일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줏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람은 ‘님자’가 ‘줏대’가 있게 일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힘을 ‘배짱’이라고 말한다. ‘배짱’은 ‘뱃심’과 ‘배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뱃심’은 ‘배짱’이 비롯하는 힘을 말하고, ‘배포’는 ‘배짱’이 뻗어나가는 크기를 말한다.

‘님자’가 어떤 것을 잘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배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람이 ‘배짱’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뱃심을 크게 늘리고, 배포를 크게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님자'는 무엇이든 깊고 넓게 묻고, 따져서 훤히 밝게 차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사람은 누구나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잘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을 잘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람은 잣대가 또렷한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은 매우 잘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바둑을 두거나, 골프를 치거나, 활쏘기를 하는 일과 같은 것을 매우 잘한다. 사람들이 또렷한 잣대를 바탕으로 삼아서, 커다란 배짱을 가지고 줏대가 있게 하나하나 일을 잘 헤아려 나가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람은 ‘잣대’가 흐릿한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은 매우 엉망이다. 예컨대 국민을 다스리거나, 학생을 가르치거나, 학문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매우 엉망이 되고 만다. 사람들은 흐릿한 잣대를 가지고서 줏대도 없고 배짱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헷갈리게 일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람은 국민을 다스리는 일, 학생을 가르치는 일, 학문을 하는 일을 놓고서 이쪽과 저쪽으로 편을 갈라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좋은 일은 모두 저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나쁜 일은 모두 남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사람들은 마치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같다. 그들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사람이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맞고 옳은 ‘잣대’를 가진 ‘님자’로 설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맞고 옳은 ‘잣대’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줏대’가 있는 ‘님자’가 되어야 하고, 셋째로 나의 ‘줏대’를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는 배짱을 가진 '님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잣대를 가지고, 줏대도 없고 배짱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서로 지껄이게 되면,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 되고 만다. 오늘날 사람들은 줄곧 이러한 싸움판에 시달리면서, 온갖 짜증을 부리면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